



/(윗줄 왼쪽부터) 구덕영 윤세훈 이민규 이창현 장민호 강현구 안무영
(아랫줄 왼쪽부터) 박기영 이현곤 부장 조승연 팀장 장수영

NER 한국사업단 시스템기술부 연료주기기술팀 열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 더욱 쫓득한 송편과 팀워크!



그 중요성만큼이나 성실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이들이 있는 곳. 바로 시스템기술부 연료주기기술팀이다. 이들과 송편을 빚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모여 앉은 가족들이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며 즐거움을 만끽하듯 유쾌한 시간은 쫓득한 송편보다 더 끈끈함으로 가득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불쾌지수와 무더위에서 벗어난 느낌에 몸이 활기분하다. 칸칸이 쳐져있던 사무실 칸막이에서 벗어나 산들바람을 반기는 소나무를 벗 삼아 모인 이들. 이현곤 부장과 조승연 팀장을 중심으로 시스템기술부 연료주기기술팀이 자리했다. 최근 TBM기술팀과 삼중수소기술팀이 합쳐지는 조직개편을 맞이해 탄생한 팀이지만 시종일관 알콩달콩 서로의 대소사를 나누는 모습이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했다.

아직 빛지도 않은 송편재료에 눈빛을 반짝이며 "와~ 떡이다!"를 연발하는 모습들이 자칫 귀엽기까지 하다. 혹 정말 굶주린 걸까? 아니다. 이들의 굶주림은 배고픔이 아닌 핵융합의 성공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 ITER 사업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 개발과 조달

시스템기술부는 한국의 ITER 조달 품목 중 시스템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삼중수소시스템, 전원공급장치, 진단장치를 국내기술로 개발·제작하여 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료주기기술팀은 핵융합 개발의 핵심기술분야인 삼중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SDS)과 삼중수소 증식 및 에너지 증폭을 발생시키는 증식블랑켓 시험모듈인 TBM 개발을 맡고 있다.

“KSTAR를 통해 습득한 초전도 기술, 핵융합 장치기술, ITER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형구조물 제작 및 장치기술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DEMO 설계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융합로공학기술의 핵심기술인 연료주기 및 증식블랑켓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 연료주기기술팀의 업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조승연 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진다. 이런 역할은 KSTAR 건설만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기술이라서 더더욱 그 중요성과 기대가 크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의 중심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만큼 그 시행착오와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자리한다.

“수행해야 할 업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자 담당한 업무 이외에도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 함께 분담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업무를 척척 처리하는 노하우에 대해 팀워크라고 입을 모은다. 자칫 무모한 도전이 되기 쉬운 현실을 상호 신뢰와 협동심을 바탕으로 무한도전의 저력을 뽐어내고 있다며 서로를 격려한다.



♥ 애인, 로또, 부동산, 다이아몬드의 공통점?

정답은 소원이다. 다소 생소하지만 재밌다는 듯 살아있는 손놀림으로 송편 반죽을 주무르고 속을 넣으며 풍요로운 한가위의 보름달에게 빌 소원들을 먼저 빌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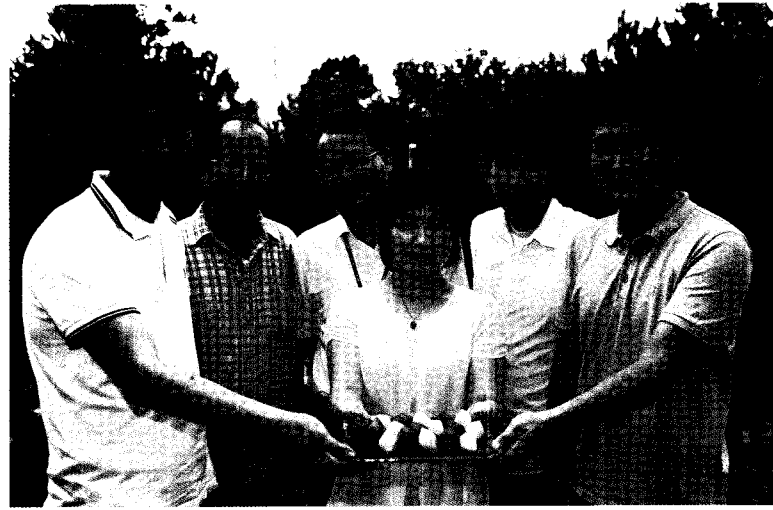
“아니? 이 사람이!” 의외의 반응에서 “그렇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하는 진심어린 격려,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있죠”하는 묘한 풍풍이(?)의 소원까지 저 마다의 개성이 물씬 묻은 송편모양처럼 다양함을 토로했다.

연료주기기술팀은 소원의 종류만큼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다. 꼼꼼한 사람, 약간 저돌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약간 수동적인 사람 등 제각각이지만 이런 개인의 다양성은 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발휘한다. 여기에 최근 3명의 인턴사원이 함께하며 활력소로 윤회유로 많은 도움을 주며 팀의 보배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우리 팀은 4년 전 노공학연구팀으로 출발해 재료연구팀, 삼중수소기술팀, TBM기술팀을 거쳐 현재까지 핵융합로공학기술 개발이라는 주 업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팀을 떠난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과 업무 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움을 딛고 새로운 팀워크와 강력한 의지로 재무장하고 발전적인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어느새 제 모양을 갖춘 송편들은 향긋한 솔내음을 풍기며 제법 먹음직스런 자태를 뽐낸다.



연료주기기술팀의 미래모습을 빚어 놓은 듯하다. 손길과 정성이 깊이 배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희망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직은 핵융합로공학기술의 연구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연료주기기술팀은 젊은 후배들이 핵융합로공학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 구심점으로 자리하려 한다. 단지 서류상의 존재가 아닌 실제로 실험과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 노하우 습득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엿보인다.

“이건 뭐여” “이게 공개 전라도 스파일이라개요” “그러~?”

너나 할 것 없이 제각각인 모양에 상관없이 입 안 가득 베어 물고 서로에게 먹여 주며 애정(?)을 과시한다. 맛과는 무관하게 송편은 동이 났다. 일할 때는 물론 먹을 때까지 확실한 그들이 있어 핵융합의 미래가 든든하게 다가온다.

저마다 행복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며 정성스럽게 송편을 빚은 손길들의 온기를 뱃속 든든히 간직한 그들은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가을을 알리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ITER 사업 조달과 DEMO 핵심기술 개발업무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돌렸다. NRI

